6-20-2010 주간 메세지

성시: 시편 47:1-9

본문: 고린도후서 11:1-4

제목: **그리스도와 정혼한 순결한 처녀인 교회**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을 바라보는 이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 바로 깨달아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이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같은 이방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모든 죄들이 씻김받아 주홍같은 죄악들이 눈같이 희게 되고, 진홍처럼 붉은 죄들이 양털처럼 희게 되어(사 1:18) 한 순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정혼하게 된 사실을 보고 경건한 질투를 느낀다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이 복된 사실을 망각하고 옛날 에덴 동산에서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다가 속아서 죄를 지은 이브처럼 될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요 1:1-5, 골 1:15-19).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 (요 1:14). 그렇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과 혼인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엄청나고 믿기 어렵고 신비로운 일을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사람을 따른 것도 아니며,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 했다 (갈 1:11-12). 다시 말해서 그는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기에 복음의 진리를 전하던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은 이유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만물을 다시 채우며 다스리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거기를 채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한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 이때에 아담은 그녀를 보고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고 말했다 (창 2:21-23).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창 2:24)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신비로운 진리를 깨닫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심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엡 5:26-33)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며 마지막 아담이라고 증거했다. 또한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증거했다. 또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라고 증거했다 (고전 15:45-47). 이 얼마나 신비로운 진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있는 죄인들과 혼인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불가사이한 이야기가 되는 것인 바, 이 사실을 깨듣는 자는 복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처럼 그의 독생자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사키셔서 사흘밤 사흘 낮을 무덤에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그분 안에 넣으시고 그분의 피로 정결케 하신 후에 우리들을 그의 아내로 삼으셨다는 말이 아닌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가운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라고 여러 번 증거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한 남편(**그리스도**)에게 정혼시켰으며 한 순결한 처녀(**교회**)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바쳤다고 증거한 것이다 (고후 11:2). 또한 동시에 옛날 아담의 아내 이브처럼 뱀(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부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과 뼈와 같은 지체들(members)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 한 지체라도 부패하면 옴 몸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거처라고 증거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잇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자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 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엡 2:19-22)

이제 조만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그리스도와 정혼한 한 처녀가 성령의 인도 하에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 혼인식을 치르고 신부가 되기 위하여 올라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살전 4:16-18,고전 15:51-56).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는 음성을 오늘 미리 듣고 복된 자들이 되지 않겠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계 19:7-9)

둘째 사람이시며 마지막 아담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천지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그분을 돕는 최상의 배필이 되는 축복을 누리지 않겠는가?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복있을진저!! 할렐루야!!

6-20-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47:1-9

Main scripture: 2Corinthians 11:1-4

Subject: **The church of God that is a chaste virgin to Christ**

Looking forward the marriage of the Lamb, the Lord Jesus Christ, we are supposed to live preparing for the eternal blessing knowing the blessing that we have received through the word of God. Apostle Paul testified that we the Gentiles, the sinners have been redeemed of all sins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by the gospel of Christ. Our sins was as scarlet, but now they are as white as snow; they were red as crimson, they are now as wool (Isaiah 1:18). He was jealous over us with godly jealousy: for he has espoused us to one husband, that he may present us as a chaste virgin to Christ. At the same time, he warned us not to be as Eve that had not listened to her husband to be tempted by the serpent: she forgets such a blessing in Eden.

Our Lord Jesus Christ was the Word in the beginning,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he created all things with the Father God; he was surely the Creator (John 1:1-5, Col. 1:15-19). What a mysterious and unbelievable thing it is, knowing that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came to the earth to be married to the sinners like us? Apostle Paul wrote to the Galatians of the gospel of Christ that he received is not after man; and he neither received it of man, neither was he taught it, but by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Gal. 1:11-12). In other word, he received the revelation of the gospel directly from Jesus Christ. So except him, no one understood; that was the reason why he was so much persecuted by the Jew.

LORD God made Adam, and blessed him, and God commanded him to replenish the earth and to subdue it, and to be fruitful in the earth. And the LORD God caused a deep sleep to fall upon Adam, and he took one of his ribs, and closed up the flesh instead thereof. And the rib, which the LORD God had taken from man, made him a woman, and brought her unto the man. Seeing her, Adam said,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he shall be called Woman, because she was taken out of Man."(Gen. 2:21-23)** Then LORD God said, **"Therefore shall a man leave his father and his mother, and shall cleave unto his wife: and they shall be one flesh."(Gen. 2:24)**

Apostle Paul understood the mysterious truth in the word of God that a man sha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shall cleave unto his wife: and they shall be one flesh, and he wrote to the Ephesians saying,

"[26]That he might sanctify and cleanse it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27]That he might present it to himself a glorious church, not having spot, or wrinkle, or any such thing; but that it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emish. [28]So ought men to love their wives as their own bodies. He that loveth his wife loveth himself. [29]For no man ever yet hated his own flesh; but nourisheth and cherisheth it, even as the Lord the church: [30]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of his flesh, and of his bones. [31]For this cause shall a man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shall be joined unto his wife, and they two shall be one flesh. [32]This is a great mystery: but I speak concerning Christ and the church. [33]Nevertheless let every one of you in particular so love his wife even as himself; and the wife see that she reverence her husband."(Eph. 5:26-33)

Apostle Paul understood this mystery, and testified that our Lord Jesus Christ is the second man as well as the last Adam. He also testified that the first man Adam was made a living soul; the last Adam was made a quickening spirit: And the first man is of the earth, earthy: the second man is the Lord from heaven, testified by him (1Cor. 15:45-47). What a mysterious truth it is? What a blessing for them that understands this truth, since Jesus Christ left the Father in heaven to be married to the sinners in the earth? As LORD God caused a deep sleep to fall upon Adam, he put his only begotten Son in deep sleep in the grave for three days and three nights for him to receive all our sins. After LORD God cleansed our sins by the blood of Christ, and put all of us into his body to make us to be his wife as one flesh with him. Apostle Paul testified many times this truth saying, "**In the Lord**", **"In Christ**", and "**In God**", "**In the Spirit**".

For this reason, Apostle Paul testified that he has espoused us to one husband, that he may present us as a chaste virgin (church)to Christ (husband)(2Cor. 11:2) He also warned that by any means, as the serpent(Satan) beguiled Eve through his subtlety, so our mind should be corrupted from the simplicity that is in Christ. The church of God that id the body of Christ consists of the members of his body, of his flesh, and of his bones. If any one member of the body is corrupted, the whole body is suffering together. Apostle Paul testified that the church is the dwelling place of God through the Holy Ghost saying:

"[19]Now therefore ye are no more strangers and foreigners, but fellow citizens with the saints, and of the household of God; [20]And are built up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Jesus Christ himself being the chief corner stone; [21]In whom all the building fitly framed together groweth unto an holy temple in the Lord: [22]In whom ye also are builded together for an habitation of God through the Spirit."(Eph. 2:19-22)

Sooner or later, there shall happen a mysterious thing happen: a chaste virgin espoused to Christ shall be lifted to the air led by the Holy Ghost to meet the Christ, her husband to be married to him (1Thes. 4:16-18, 1Cor. 15:51-56) What about being the blessed ones we may be by hearing the voice from the throne of God in heaven today?

"Let us be glad and rejoice, and give honour to him: for the marriage of the Lamb is come, and his wife hath made herself ready. [8]And to her was granted that she should be arrayed in fine linen, clean and white: for the fine linen is the righteousness of saints. [9]And he saith unto me, Write, Blessed are they which are called un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And he saith unto me, These are the true sayings of God."(Rev. 19:7-9)

What blessing for us if we obey the word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is the last Adam, and our eternal husband? What a blessing to be the best spouse for him that is the eternal ruler in heaven and earth? What a blessing for them that understand this truth? Hallelujah!